

21세기는 과연 문화의 세기인가

불자 세상보기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기대가 바탕에 깔린 말이지만 무게를 실어 주고 싶다. 인간의 품격을 살려줄 수 있는 영역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의 현실을 보자하니 웬지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문화는 개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차별성과 독창성으로 빛을 내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의식을 토대로 하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양성과 독창성은 세대간 계층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문화 발전의 지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한 지향은 우려되는 바 크다. 특히 세대간의 이질화는 점점 확대되고 고차

화되어 가는 느낌을 받는다. 386세대, 신세대, n세대, e세대 등의 용어가 편가르기처럼 들린다. 나 아닌 상대를 존중하는 구분이 아니라 '우리끼리'라는 달팽이집 짓기에 열중한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집단끼리만 소통되는 언어를 은어라고 한다. 언어사학에서는 시대상을 확인하는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은어와 익명이 난무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문화란 결국 내가 만든 지혜의 산물을 광장에 내놓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밀실에서 꾸미는 음모가 아니다.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와 상업주의의 창궐이 그런 음모를 조장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끼리끼리문화 확산

세대간 이질감 심화

책 읽지 않는 사회

계몽 설자리 없다

거창하게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하라고 목청을 높일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 이미 암세포처럼 번지고 있는 끼리끼리 문화를 우려한다. 냉소와 무시로 무장한, 상대성에 대한 부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손쉬운 예로 대중문화만 해도 그렇다. 세대간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청소년들은 대중 문화의 막



이우상 소설가

강한 소비자로써 그 목소리가 우렁찬 반면 중년층은 흘러간 옛노래에 향수를 달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청소년들의 감각적 기호에 열중한 상업주의는 더욱 자극적, 더욱 열기적 상품을 생산하기에 분주하다.

이는 곧 문화편식현상을 수반한다. 영화 관람객이 늘고, 음반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사이버공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책'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인 활자 매체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책을 멀리하는 삶의 방식이 당연시되고 훈계와 계몽은 낡은

시대의 폐기물처럼 설 자리가 없다. 쉬운 것,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본능을 억제하고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도 필요하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협현상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예컨대, 모든 부모들은, 사내 자식이 거칠고 투박할길 바라지만 딸 자식을 맡길 사위는 아무래도 유순한 청년이길 바란다. 이런 불균형한 사고는 결국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에 대한 균형각각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난 세기와는 달리 문화의 세기라는 금세기에 문화의 다양성이 더욱 필요하다. 풍부한 상상력은 사회발전의 요체이고, 그 상상력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온다. 상상력 없는 논리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사회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들었다

정재남비

법답게 재물 구하고 써라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해야 한다. 필요치 않을 때에는 그것이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스스로 금은 따위의 보물들을 받지 말아야 한다.

〈집아합경〉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수행을 멀리하고 남비를 일삼으며, 익혀온 악업을 모두 즐겼지만 노년에 돌아오는 것은 짝 잃은 후회뿐이다. 〈법구경〉

■비록 백년을 오래 살아가고 계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루동안이나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출요경〉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자신을 위해 재물을 받거나 모으지 않고 모든 재물은 가난하고 고생많은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데에만 쓰겠습니다. 〈승만경〉

■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 취하고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독한 괴로움의 고통을 받으리라. 〈집아합경〉

■재물은 종종 번뇌죄업의 인연이 된다. 지계 선정 지혜와 같은 선법은 열반의 인연이 된다. 〈대지도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적정하고 재산이 있으면 또 재산에 고동받는다. 〈대무량수경〉

■만일 법답게 재물을 구하고 팔출려 노력하여 얻는 것으로 남에게 이바지 하고 스스로도 바른 곳에 쓰며, 널리 베풀어 복도 지으면 이 모두가 다 덕이 되는 일이다.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물이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속에 살아가는 사람중에 최상이 될 것이다. 〈복음경〉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가 되어서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 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며 재물은 그 몸을 따라가지 않는다. 〈중유아합경〉

■아무도 제가 벌여 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연이 맞아서 자신에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된다. 〈육방배경〉

독자의 소리

스님사칭 물건 판매 시골 노인까지 현혹

스님을 가장한 사기행각이 요즘에 다시 활개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기수법도 예전에는 도심에서 큰스님이 법문을 하고 신도들을 모이게 해 거액의 영주세트를 파는 식이었다. 요즘엔 스님으로 가장한 사람이 시골에서 노인들을 모아놓고 영주세트를 돌린 뒤 온라인 구좌로 돈을 받는 식이다.

물론 스님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사례가 없어 아찔하지만 불자를 또한 스스로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절에 몇 번이라도 다녀온 불자라면 잘 알겠지만, 동네를 돌며 법문을 하고 물건을 파는 스님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진짜 스님이라면 절대로 물건을 팔며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불자들은 꼭 명심하기 바란다.

우승희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초공양 공덕 좋지만 법당서 시비 꼴불견

얼마전 절에 가서 초공양을 놓고 불자들간에 서로 시비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어떤 불자가 이미 꽃혀있는 다른 사람의 초를 빼 버리고 자신의 초를 꽂자, 그 사람이 벌떡 화를 내며 다툼이 시작됐다. 신성한 법당이 일순간 시장 터처럼 변해버렸다. 서로가 물러설 줄 모르고 다투는 모습에서 씁쓸함마저 느껴졌다. 그런 마음으로 법당에서 절은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불자라면 적어도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믿는다. 또 설혹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일은 삼가해야 마땅하다. 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경전을 독송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김갑숙 · 서울 용산구 한강로

악수하며 대화하는 스님-신도관계 되길

몇주전 우연히 어떤 교회 앞을 지나다가 신자들이 교회 입구에서 나란히 줄을 선 몇몇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다가가 보았더니 교회 목사와 집사들이 신도들과 손을 잡으며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 불현듯 내가 다녔던 몇몇 절의 분위기가 떠올랐다. 스님 법문이 끝나고 점심공양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간혹 한두 사람이 스님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거의 모든 불자들은 그런 경향이 없었다.

스님들도 이제는 신도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앉아서 권위만을 내세운다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교회로 불자들이 발길을 돌릴지도 모른다.

김재운 · 경기 안양시 민안구

현대불교를 읽고

'관람료사찰과 포교' 기사 공감

현대불교신문의 기획연재 '관람료 사찰과 포교'는 정말 공감 가는 기사였다. 나와 내 아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고 또 고즈넉한 사찰에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좋아 종종 사찰을 찾곤 한다. 그런데 가는 절에서마다 냉대받

았다는 생각이 서운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들지 않은 때가 없었다. 어떤 때에는 '저 밥 한끼 얻어먹으러 왔다'라는 생각에 처량하기까지 했다. 사찰에 갔을때 무언가 물어볼 것이 있어도 스님을 뵈기가 어렵고, 또 빈다 하더라도

서둘러 자리를 끝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비로움과 온화함으로 불자들이 이끌어주는 분위기는 어느 사찰에서도 느낄 수 없다. 타종교인 혹은 절에 마음을 불어려고 찾아갔던 사람이라면 과연 불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자들이 사찰을 찾는 것은 불교의 역사를 체험하고 스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수양을 쌓기 위해서다. 마치 잘 아는 식당에 가서 밥 한끼 먹고 나오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다면 어느 누가 절을 찾겠는가.

누구나 가고 싶고, 친근감을 느끼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찰로 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현 · 한국석불문화회 부회장

기고

365일이 한글날 우리말 바로쓰기 언론부터 솔선



김무봉 (동국대학교수 · 국문학)

우리 말과 글이 제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컴퓨터를 켜면 이해할 수 없는 낱말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난무하고, 길을 가는 청소년들의 대화는 차라리 암호에 가깝다. 심지어 가정과 직장의 일상에서도 국적불명의 언어들이 오간다. 혼탁해지지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며칠 전이 한글날이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한글 창제의 송고한 뜻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언어생활을 돌아보곤 한다. 그래서 어느 해 할 것 없이 이 무렵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우리 언어생활의 절도 없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만이 우리 문자를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에 부합하고, 한글날 제정의 의의를 찾는 길인 양 목소리에 자못 힘이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언어생활이 일과성 운동이나 구호성 소란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비판자들은 오늘날의 언어생활 중 잘못된 부분의 지적에는 앞을 다투고 있으나, 그 해결책의 제시에는 소극적이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비판만 늘어 놓는다. 그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고쳐질 리 없다. 그냥 문제 제기를 위해 제시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말과 글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으며, 그 극복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방향까지도 함께 제시해 주면 좋겠다. 특히 비판의 맨 앞에서 있는 언론매체, 그 중에서도 방송매체부터 솔선하여 바른말과 품위 있는 우리말 쓰기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요란한 구호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직접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다.

언어란 그 민족문화의 정화(精華)로 만들어져서 민족문화 창흥의 토대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십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대야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두고, 각각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염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기도를해보시기를!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I.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II.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율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